

## 성피해자의 수치심과 우울의 관계에서 용서의 매개효과

하 늘      배 성 만      현 명 호<sup>†</sup>  
중앙대학교

본 연구는 성피해자의 수치심과 우울의 관계에 용서가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596명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각 변인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성피해를 경험한 집단(120명)에서 수치심과 우울이 유의하게 높았고, 용서 정도도 낮게 보고하였다. 피해집단의 우울은 수치심과는 정적 상관, 전체용서와 자기용서, 상황용서와는 부적 상관이 있었고, 타인용서와는 상관이 없었다.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수치심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전체용서와 자기용서, 상황용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전체용서와 자기용서, 상황용서 모두 수치심과 우울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었으나, 타인용서는 이들 관계를 매개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피해자의 치료적 개입에 있어서의 용서 접근의 필요성과 더불어, 특히 자기용서와 상황용서가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및 추후 연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성피해, 수치심, 우울, 용서, 자기용서, 타인용서, 상황용서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인간의 갈등과 상처를 겪기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충격적이고 스트레스가 심한 사건으로 성폭력이 꼽힐 만큼(박효정, 홍창희, 2010), 성피해는 한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자 상처가 매우 큰 경험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대략 30% 이상이 성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김재엽, 최지현, 2009),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전체의 절반 이상이 성피해를 보고한 바 있다(채규만, 정민철, 2004). 이처럼 성피해를 보고하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현명호, (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TEL: 02-820-5125, E-mail: hyunmh@cau.ac.kr

는 사람이 많아지고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장면도 점차 다양해지면서 성피해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더불어 치료 개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20년간 성폭력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의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Haugaard, 2000). 그러나 범위를 넓혀 이해하자면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 언어, 그리고 정신적 폭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현아, 2008). 성피해는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후유증을 수반한다. 심리적으로는 불안, 수치심, 우울증, 자기 존중감의 저하 등이 나타나고(김정규, 김중술, 2000), 신체적으로는 신체적 상해와 성기능 장애, 심인성 통증 등이,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대인관계 영역의 문제 등이 후유증으로 나타난다(김현아, 2008). 특히 심리적 후유증은 매우 심각하여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피해 경험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고 비난의 화살을 자신에게로 돌림으로써 위축되고 무기력해질 수 있다. 수치심은 자기 전체를 문제시하는 경험이자 병리적인 것으로(Lewis, 1971; 이인숙, 최해림, 2005, 재인용),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신의 모습에 대한 심리적 충격과 같은 강한 정서적 반응이다(Trumbull, 2003). 성피해로 인한 수치심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피해로 인한 증상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Fiering & Taska, 2005). 또한 피해로 인해 느끼는 수치심은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개인내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수치심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가지는 부정적인 감정은 우울에도 영향을 준다. 스스로가

힘없고 무가치하다고 느낌으로써 무력감과 기분저하, 우울로 이어지는 것이다. 성학대로 인한 수치심은 우울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고(Aslund, Nilsson, Starrin, & Sjoberg, 2007), 학대로 인한 수치심이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결과 역시 이를 뒷받침 해준다(Kim, Thibodeau, & Jorgensen, 2011; Webb, Heisler, Call, Chikering, & Colburn, 2007). 따라서 성피해로 인한 수치심은 스스로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울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성피해는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어서 적절한 치료를 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 치료 역시 피해자의 증상 치유와 기능 회복에만 초점을 맞추고 피해자의 감정에 대해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아 충분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이다(Walton, 2005).

최근 대인외상의 치료 영역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용서’는 개인이 더 이상 힘없는 피해자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서 상처를 다룰 수 있게 도와준다. 용서는 부정적인 생각과 정서, 행동을 포기하고 과거의 비극이나 외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긍정적인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서(Fischer, 2006), 피해자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어있지 않게 함으로써 고통의 굴레를 끊을 수 있도록 해 준다.

용서 연구가 활발해지고 축적됨에 따라 용서의 대상도 자기, 타인, 상황으로 구분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용서라고 할 때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타인용서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나 미움을 포기하고 가해자의 입장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McCullough,

2000). 자기용서는 자신에 대해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에 대한 의심과 분노의 생각을 버리는 것으로, Mauger 등(1992)이 그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더하여 상황이나 정황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바꾸어 재해석하는 상황용서는 Thompson 등(2005)이 용서 특질의 구성요소로 포함시켰다. 이로써 자기와 타인, 상황으로 용서의 대상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성피해 경험으로 인한 수치심은 용서를 어렵게 만든다. 상처로 인해 훼손된 자아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이는 심리적 혹은 실제적 상호작용을 어렵게 하여 용서를 가능하지 않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손운산, 2009). 높은 수준의 수치심은 정신병리와 강하게 관련될 뿐만 아니라(Abe, 2004) 용서와도 부적인 관계가 있다(Konstam, Chernoff, & Deveney, 2001)는 연구를 통해서도 이를 예상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자기용서와 상황용서이다. 성피해와 같이 강렬한 외상사건으로 인한 상처는 개인의 내면에 오래 남아서 자기개념을 저하시키고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기 쉽다. 외상으로 인해 자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낄수록 자기용서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수치심과 자기용서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수치심이 높으면 자기용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자신을 용서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보고하였다(Ranganathan & Todorov, 2010). 또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울이나 불안, 분노 등과 같은 정신병리적 측면과 관계가 깊다는 연구(Mauger et al., 1992; Kimberly, 2007)를 통해서도 수치심과 자기용서, 우울 사이에 관련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성피해의 경우 피해 당시의 안전하지 않고 보살피주지 않았던 세상에 대한 원망이 자리 잡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상황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인 감정이 훼손될 수 있다. 상황을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 적응을 어렵게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우울과 분노, 불안과 같은 정서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Thompson et al., 2005).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아동학대 피해자를 대상으로 PTSD와 적개심 사이의 용서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타인용서보다 자기용서와 상황용서가 임상적 함의가 더욱 컸는데(Snyder & Heinze, 2005), 이는 용서의 대상에 따라서 이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성피해와 관련한 용서 연구는 국외의 몇몇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어 왔으나(Freedman & Enright, 1996; Helm, Cook, & Berecz, 2005; Walton, 2005), 국내에서는 성피해와 용서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김현아, 2008) 이외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 앞서 논의한 바와 더불어 용서 특질이 수치심과 우울, 심리적 학대와 부적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를 볼 때(Webb, Colburn, Heisler, Call, & Chickering, 2008), 용서는 성피해자의 수치심과 우울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기해야 할 점은 성피해라는 특수한 상황이다. 특히 성폭력은 대인외상 영역 중에서도 피해자가 받아들이는 괴로움의 정도가 극심하고, 가해자의 의도가 명백히 포함되어 있어 가해자를 향한 타인용서만으로는 성피해자의 용서를 탐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모든 피해 상황과 동일하게 가해자에 대한 용서를 적용하기 보다는 용서의 대상을 가해자뿐만이 아

나라 피해를 입은 자신과 피해 상황까지 넓혀서 각각의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피해로 인한 수치심과 우울의 관계에서 용서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용서의 대상을 자기, 타인, 상황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각각의 구체적인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용서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성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후유증에 있어 용서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 나아가 성피해에 보다 바람직하고 유용한 용서의 대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방 법

### 참여자

본 연구의 참가자는 서울과 수도권 소재 2개의 대학과 강원도 소재 1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596명이었다. 설문지에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한 문항이라도 응답하지 않은 학생(16명)을 제외한 580명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분석되었다. 성의식 및 성활동 질문지를 바탕으로 원치 않는 성경험을 묻는 8문항에 하나라도 답한 학생은 성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류하였다. 전체 580명 중 성피해를 보고한 학생은 120명(남 27명, 여 93명)이었고, 성피해를 입은 적이 없다고 보고한 학생은 460명(남 167명, 여 293명)이었다.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21.54(표준편차 2.54)세였다. 집단 간 비교는 피해집단과 비피해집단을 대상으로 하였고, 상관분석과 매개효과의 분석은 피해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 측정 도구

**내면화된 수치심.** 내면화된 수치심은 Cook(1987)이 만든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SS: Internalized Shame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30문항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로서 이인숙과 최혜림(2005)이 번안하고 타당화하였다. 수치심을 측정하는 24문항과 6개의 자존감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런 경우가 없다'의 0점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의 4점까지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 중 수치심을 측정하는 24문항을 선택하여,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96점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92로 나타났다.

**용서.** 용서는 Thompson 등(2005)이 개발한 Heartland 용서척도(HFS: Heartland Forgiveness Scale)를 Lee(2009)가 한국어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7점 척도로 이루어진 이 척도는 자기용서와 타인용서, 상황용서를 알아보는 6개씩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용서하는 성향이 더 높은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80이었다.

**우울.** 우울은 한국판 우울척도(CES-D)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Randroff(1977)가 일반인의 우울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한국판으로 개발하였다. 최근 1주일 동안의 우울 증상을 0점에서 3점까지 평정하는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0점에서 60점까지의 점수분포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93으로 나타났다.

**성피해.** 성피해 여부는 성의식 및 성활동 질문지를 사용하여 알아보았다. 성의식 및 성활동 질문지는 성신여대 심리건강 연구소(1998)에서 제작한 것으로 성의식 질문 35문항, 원치 않는 성경험에 관한 15문항과 피해의 특성에 관한 15개 문항, 성장배경 문항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는 성피해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원치 않는 성경험에 관한 8문항, 피해경험을 중심으로 한 피해의 특성에 관한 5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원치 않는 성경험을 묻는 문항에 하나라도 '예'라고 응답하였을 경우 성피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 자료분석

모든 자료는 SPSS for Window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피해집단과 비피해집단을 나누어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고, *t*검증을 통해 비교하였다. 그 후 피해집단의 수치심과 용서, 우울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용서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피해집단과 비피해집단 간 비교

성피해집단과 비피해집단의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t*검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검증 결과, 피해집단이 비피해집단보다 수치심( $t(578) = 5.73, p < .001$ )과 우울( $t(578) = 2.86, p < .01$ )이 높았고, 용서( $t(578) = -2.3, p < .05$ )와 자기용서( $t(578) = -2.98, p < .01$ )는 비피해집단에서 높았다. 그 밖의 타인용서, 상황용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피해집단의 각 변인간 상관관계

피해집단의 수치심과 우울, 용서와 세부적인 자기용서, 타인용서, 상황용서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관을 표 2에 제시하였다. 수치심은 용서( $r = -.602, p < .01$ )와 자기용서( $r = -.628, p < .01$ ), 타인용서( $r = -.181, p < .05$ ), 상황용서( $r = -.504, p < .01$ )와 부적상관이 있었고, 우울( $r = .709, p < .01$ )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우울은 용서( $r =$

표 1. 피해집단과 비피해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t*검증 결과

	피해집단 ( <i>n</i> =120)	비피해집단 ( <i>n</i> =480)	<i>t</i>
	<i>M</i> ( <i>SD</i> )	<i>M</i> ( <i>SD</i> )	
1. 수치심	30.30 (14.62)	22.20 (13.58)	5.73***
2. 용서	80.34 (12.90)	83.39 (12.95)	-2.30*
2-1. 자기용서	28.28 (6.41)	29.93 (5.20)	-2.98**
2-2. 타인용서	24.93 (4.08)	25.74 (5.53)	-1.51
2-3. 상황용서	27.13 (5.95)	27.72 (5.10)	-1.08
3. 우울	19.71 (12.40)	16.50 (10.53)	2.86**

\* $p < .05$ , \*\* $p < .01$ , \*\*\* $p < .001$

-550,  $p < .01$ )와 자기용서( $r = -.588, p < .01$ ), 상황용서( $r = -.472, p < .01$ )와는 부적 상관이 있었으나 타인용서와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 수치심과 우울의 관계에서 용서의 매개효과

수치심이 우울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용서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매개효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둘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함께 종속변인에 영향을 줄 때, 두 번째의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설명량보다 세

번째에서의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설명량이 줄어들어야 한다. 만약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이고,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부분매개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수치심과 우울의 관계에서 용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표 3에 제시한 것처럼 피해집단의 수치심은 용서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beta = -.60, p < .001$ ) 수치심이 우울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beta = .71, p < .001$ )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다. 마지막으로 수치심과 용서를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놓고 우울을 종속변

표 2. 피해집단의 각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피해집단 ( $n=120$ )		1	2	2-1	2-2	2-3
	M	SD					
1. 수치심	30.30	14.62	-				
2. 용서	80.34	12.90	-.602**	-			
2-1. 자기용서	28.28	6.41	-.628**	.875**	-		
2-2. 타인용서	24.93	4.08	-.181**	.505**	.175	-	
2-3. 상황용서	27.13	5.95	-.504**	.879**	.699**	.221*	-
3. 우울	19.71	12.40	.709**	-.550**	-.588**	-.126	-.472**

\* $p < .05$ , \*\* $p < .01$

표 3. 수치심과 우울에 대한 용서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beta$	$R^2$	F
1단계 (독립 → 매개)	수치심 → 용서	-.60***	.362	67.09***
2단계 (독립 → 종속)	수치심 → 우울	.71***	.502	119.18***
3단계 (독립, 매개 → 종속)	수치심 → 우울	.59***	.526	64.98***
	용서 → 우울	-.19*		

\* $p < .05$ , \*\* $p < .01$ , \*\*\* $p < .001$

인으로 둔 회귀식에서, 수치심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 $\beta = .59, p < .001$ ) 및 용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 $\beta = -.19, p < .05$ )이 모두 유의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보다 세 번째 단계에서 수치심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게 감소하여( $\beta = .71 \rightarrow \beta = .59, \text{Sobel } Z = 5.380, p < .001$ ), 용서가 수치심과 우울 사이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통계절차를 통하여 수치심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용서(표 4)와 상황용서(표 5)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였다. 자기용서는 두 번째 보다 세 번째 단계에서 우울에 대한 수치심의 영향력이 감소( $\beta = .71 \rightarrow \beta = .56, \text{Sobel } Z = 5.900, p < .001$ )하였고, 상황용서 역시 두 번째

보다 세 번째 단계에서 우울에 대한 수치심의 영향력이 감소( $\beta = .71 \rightarrow \beta = .63, \text{Sobel } Z = 4.306, p < .001$ )하였다. 이로써 수치심과 우울사이에서 자기용서와 상황용서가 각각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용서의 영역 중 타인용서는 우울과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아서( $r = -.126, p > .05$ ), 타인용서의 매개효과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논 의

본 연구는 성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심리적 후유증에 대한 용서의 역할과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성피해자의 수치심과 우

표 4. 수치심과 우울에 대한 자기용서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beta$	$R^2$	F
1단계 (독립 → 매개)	수치심 → 자기용서	-.63***	.395	76.98***
2단계 (독립 → 종속)	수치심 → 우울	.71***	.502	119.18***
3단계 (독립, 매개 → 종속)	수치심 → 우울	.56***	.536	67.62***
	자기용서 → 우울	-.24**		

\* $p < .05$ , \*\* $p < .01$ , \*\*\* $p < .001$

표 5. 수치심과 우울에 대한 상황용서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beta$	$R^2$	F
1단계 (독립 → 매개)	수치심 → 상황용서	-.50***	.254	40.25***
2단계 (독립 → 종속)	수치심 → 우울	.71***	.502	119.18***
3단계 (독립, 매개 → 종속)	수치심 → 우울	.63***	.520	63.39***
	상황용서 → 우울	-.15*		

\* $p < .05$ , \*\* $p < .01$ , \*\*\* $p < .001$

울에 용서가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전반적인 용서의 영향과 함께 용서를 자기용서, 타인용서, 상황용서로 나누어 매개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성피해에 특정적이고 유용한 용서의 대상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피해집단과 비피해집단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피해집단이 비피해집단에 비해 수치심과 우울이 유의하게 높고, 용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피해자가 보다 높은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고, 자기 자신이나 상황, 타인에 대해 편안한 마음을 가지기 힘들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성피해자는 피해로 인한 수치심과 우울 등의 심리적 후유증을 경험하고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와 일치하며(김정규, 김중술, 2000; 김현아, 2008; Najman, Nguyen, & Boyle, 2007), 외상을 보고한 개인은 심리적 불편감을 크게 경험하고 용서 수준이 낮다는 기존 연구와도 일치하였다(Orcutt, Pickett, & Pope, 2005).

다음으로 성피해 집단을 대상으로 각 변인간 상관을 살펴본 결과, 수치심과 우울은 용서와 자기용서, 상황용서와 부적상관이 있었다. 성피해를 입은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수치심을 많이 경험하고, 용서를 잘 하지 못함에 따라 더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울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던 타인용서를 제외한 후, 수치심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용서의 매개 역할을 검증한 결과 용서와 자기용서, 상황용서 모두 부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먼저 자기용서와 타인용서, 상황용서 모두를 포괄하는 전반적인 용서가 수치심과 우울의 사이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반적인 용서

특질이 성피해로 인한 수치심과 우울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용서가 성피해자에게 있어 중요한 치료적 변인임을 주장하고 있는 선행연구(Walton, 2005; Helm et al., 2005)를 지지한다. 또한 배우자의 정서적 학대를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용서치료를 실시한 결과 다른 치료를 받은 집단보다 우울과 불안, PTSD 증상이 낮아지고 전반적인 기능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연구(Reed & Enright, 2006)와 용서가 성피해자의 PTSD 증상을 낮춰주고 힘을 북돋아주며 정신건강에도 많은 이점이 있다는 점(Johnston, 2007)에서 볼 때, 이후 성피해자의 심리적 불편감의 치료에 있어서도 용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기용서는 가장 강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수치심은 자기 자신을 향한 비난과 관련된 정서일 수 있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생각을 거두지 못하면 더욱 심각한 우울과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이때 자기용서가 가능해지면 개인은 자신에 대한 연민이나 관대함을 가짐으로서 자기분노를 버리고 피해를 입은 자신을 인정하고 생각을 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Thompson et al., 2005). 자기를 용서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건에 직면해도 보다 적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경향을 가진다는 연구(Romeo et al., 2006)를 볼 때, 성피해자에게 있어서 자기용서는 자신에 대한 파괴적인 태도를 멈추게 하는 핵심적인 치료적 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와 비슷하게 상황용서도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성피해 상황은 세상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인 가정을 훼손시킬 정도의 큰 충격으로 다가

을 수 있고, 훼손된 긍정적 가정이 다른 상황까지도 확대되어 전반적인 부적응적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때문에 상황용서가 가능해지면 피해 상황을 관대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나아가 세상과 상황을 보는 관점을 ‘다를 수 있고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그로 인해 보다 적응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며 성피해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반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자기용서와 상황용서는 전반적인 용서와 더불어 피해집단의 수치심으로 인한 우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학대피해자의 치료에 있어 자기용서와 상황용서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Snyder & Heinze, 2005)를 뒷받침해준다.

반면에 용서 하위요소로서의 타인용서는 수치심과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의 상처나 외상과 달리 성피해는 가해자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고 상처의 정도도 매우 깊다는 점이다. 보통의 대인관계에서 일어난 상호적인 갈등이나 충돌에 비해 성피해는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가해를 가한 경우가 많고 가해자와 피해자로 비교적 분명하게 나누어진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은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일이며 법에 의거하여 처벌도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준 가해자를 용서하는 행위 자체는 피해자에게 있어 비현실적이거나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다.

둘째, 가해자나 그와 관련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해자의 사과나 화해를 유도하거나 가해자와 관련된 개입을 하는 것은 성피해자

에게 이차적인 심리적 상처를 입힐 위험이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성피해자의 용서 유형을 탐색한 연구에서도 가해자와의 화해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용서보다는 피해자의 개별적이고도 개인 내적인 과정을 통한 용서가 더 유용하다고 밝힌 바 있다(Helm et al., 2005). 따라서 수치심과 우울에 있어서 타인용서의 매개 역할은 크지 않을 것이며, 타인용서의 치료적 효과도 적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인용서를 적용할 때에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용서와 더불어 자기용서, 상황용서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았다. 성피해의 수치심과 우울 사이의 용서의 부적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피해로 인한 수치심을 느끼더라도 용서, 특히 그 중에서도 자기용서와 상황용서를 한다면 덜 우울해질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심리적 후유증에 대한 새로운 치료적 가능성의 관점에서 용서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통상적인 용서로 여겨졌던 타인용서에서 나아가 용서를 자기용서, 상황용서까지 나누어 탐색함으로써 성피해에 특정적인 용서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성피해자에게 용서를 적용할 때 무조건적인 타인용서의 강요보다는 자기용서와 상황용서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피해가 단 1회의 경미한 사건만으로도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을 가정하고 피해집단의 성별과 피해를 입은 연령, 피해 빈도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남녀에게 미치는 성피해의 영향은 전반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그 세부적인 반응에서 남녀의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장진숙, 박경, 2006)와 피해가 심할수록 성적 재회생 가능성이 높고(권희경, 장재홍, 2003), 피해 연령이 어리고 피해 빈도가 높을수록 정신병리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연구(Putnam, 2003)로 보아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피해자의 성별과 피해 특성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여전히 남아 있는 타인용서의 치료적 역할에 대한 아쉬움이다. Berecz(2001)는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와의 화해가 가능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밝히면서 분리적 용서(disjunctive forgiveness)의 개념을 새롭게 주장하였다. 분리적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화해나 상호작용이 없는 단절된 상태에서 가해자를 용서하고 연민을 보이는 것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거리를 둔 채 스스로 자신의 상처와 가해자에 대한 생각을 재구성하는 것을 통해 원한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성피해자를 대상으로 용서 방식을 살핀 연구에서는, 가해자와의 화해를 전제로 하지 않는 분리적 용서와 가해자와의 화해를 전제로 하는 결합적 용서 중 피해자의 86% 이상이 분리적 용서 방식을 보고하였고, 이러한 분리적 용서 방식을 통해 치유되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Helm et al., 2005). 따라서 성피해자가 자기용서와 상황용서를 통해 부정적 정서에서 편안해진 이후에는 가해자와의 화해를 전제하지 않는 분리적 용서의 방식을 타인용서의 방식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권희경, 장재홍 (2003). 청소년 성피해자들의 성폭력 인식과 자기손해적 성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1), 35-47.
- 김재엽, 최지현 (2009). 성폭력 경험이 청소년기 여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왜곡된 성통념의 매개효과. *한국아동학회지: 아동*, 30(2), 231-247.
- 김정규 (1998). 성피해의 심리적 후유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331-345.
- 김정규, 김종술 (2000). 아동기 성 피해의 심리적 후유증. 성인기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4), 747-769.
- 김현아 (2008). 대학생 성 피해자들의 용서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 김혜은 (2006). 여대생의 성피해 경험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문제해결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248-249.
- 박효정, 홍창희 (2010). 글쓰기 용서치료가 대인외상경험자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1), 83-107.
- 손운산 (2009). 수치심의 치료와 용서. *신학사상*, 147, 253-278.
- 이인숙, 최해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SS)의 타당화 연구 - 애착, 과민성 자기애, 외로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51-670.
- 장진숙, 박경 (2006). 남녀 대학생 성피해 경험과 성인지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 *심리치료*, 6(2), 61-80.
- 전점규,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채규만, 정민철 (2004). 한국대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 및, 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869-886.
- Abe, J. A. (2004). Shame, guilt and personality judgement. *Journal of Research in*

- Personality*, 38, 85-104.
- Aslund, C., Nilsson, K. W., Starin, B., & Sjoberg, R. L. (2007). Shaming experiences and the association between adolescent depression and psychosocial risk factors. *European Child Adolescent Psychiatry*, 16(5), 298-304.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rez, J. M. (2001).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Bad forgiveness in counseling and preaching. *Pastoral Psychology*, 49(4), 253-276.
- Enright, R. D. (2001). *Forgiveness is a choice: A Step-by-step process for resolving anger and restoring hope*.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ischer, P. C. (2006). The link between posttraumatic growth and forgiveness: An intuitive truth. In L. G. Calhoun & R. G. Tedeschi(Eds.), *Handbook of posttraumatic growth: research and practice*. Mahwah, NJ: Erlbaum.
- Freedman, S. R., Enright, R. D. (1996). Forgiveness as an intervention goal with incest survivo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5), 983-992.
- Haugaard, J. J. (2000). The challenge of defining child sexual abuse. *American Psychologist*, 55, 1036-1039.
- Helm, H. W. Jr., Cook, J. R., & Berez J. M. (2005). The implications of conjunctive and disjunctive forgiveness for sexual abuse. *Pastoral Psychology*, 54(1), 23-34.
- Johnston, S. K. (2007). *The affects of forgiveness on the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s a result of sexual trauma*.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Whitewater, Wisconsin, USA.
- Kim, S., Thibodeau, R., & Jorgensen, R. S. (2011). Shame, guilt, and depressive symptom: A meta-analytic. *Psychological Bulletin*, 137(1), 68-96.
- Kimberly A. C. (2007). *Sexual trauma, forgiveness, and health*. Doctoral Dissertation, Regent University, Virginia, USA.
- Konstam, V., Chernoff, M. & Deveney, S. (2001). Toward forgiveness: The role of shame, guilt, anger, and empathy. *Counseling and Values*, 46, 26-39.
- Lee, C. (2009). *Testing a mediation effects of rumin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positional forgiveness and depression: A cross cultural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the U. S.* Master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Korea.
- Maltby, J., Macaskill, A., & Day, L. (2001). Failure to forgive self and other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orgiveness, personality, social desirability and general health.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5), 881 - 885.
- Mauger, P. A., Perry, J. E., Freeman, T., Grove, D. C., McBide, A. G., & Mckinney, K. E. (1992). The measurement of forgiveness: Preliminary research.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11(2), 170-180.
- McCullough, M. E. (2000). Forgiveness as human strength: Theory, measurement, and links to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1), 43-55.
- Najman, J. M., Nguyen, L. T., & Boyle, F. M. (2007). Sexual abuse in childhood and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adulthood: An Australian population study. *Archives of Sexual*

- Behavior*, 36(5), 666-675.
- Orcutt, H. K., Pickett, S. M., & Pope, E. B. (2005). Experiential avoidance and forgiveness as mediation in the relation between traumatic interpersonal event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4(7), 1003-1029.
- Putnam, F. W. (2003). Ten-year research update review : Child sexual abus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2(3), 269-278.
- Ranganathan, A. R., & Todorov, N. (2010). Personality and self-forgiveness: The role of shame, guilt, empathy and conciliatory behavior.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9(1), 1-22.
- Reed, G. L. & Enright, R. D. (2006). The effects of forgiveness therapy on depression, anxiety, and posttraumatic stress for women after spousal emotional abus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5), 920-929.
- Romero, C., Friedman, L. C., Kalidas, M., Elledge, R., Chang, J., & Liscum, K. R. (2006). Self-Forgiveness, Spirituality,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Women with Breast Cancer.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29(1), 29-36.
- Sobel, M. E. (1982).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 Snyder C. R., & Heinze L. S. (2005). Forgiveness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TSD and hostility in survivors of childhood abuse. *Cognition and Emotion*, 19(3), 413-431.
- Thompson L. Y., Snyder C. R., Hoffman, L., Michael, S. T., Rasmussen, H. N., Billing, L. S., Heinze L., Neufeld, J. E., Shorey, H. S., Roberts, J. C., & Roberts, D. E. (2005). Dispositional forgiveness of self, others, and situ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73(2), 313-360.
- Trumbull, D. (2003). Shame: An Acute stress response to interpersonal traumatization. *Psychiatry*, 66(1), 53-64.
- Walton E. (2005). Therapeutic forgiveness, developing a model for empowering victims of sexual abuse.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33(2), 193-207.
- Webb M., Colburn, T. A., Heisler, D., Call, S., & Chickering, S. A. (2008). Clinical correlates of dispositional forgiven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8(10), 2495-2517.
- Webb, M., Heisler, D., Call, S., Chickering S. A., & Colburn T. A. (2007). Shame, guilt, symptoms of depression, and reported history of psychological maltreatment. *Child Abuse and Neglect*, 31(11), 1143-1153.

원고접수일: 2011년 7월 13일

수정논문접수일: 2011년 11월 4일

게재결정일: 2011년 11월 14일

# The Mediating Effects of Forgive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hame and Depression in Survivors of Sexual Abuse

Neul Ha      Sung-Man Bae      Myoung-Ho Hyun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whether forgiveness have any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hame and depression in survivors of sexual abuse. To examine this, 580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participants were asked to complete the questionnaires of sexual abuse, shame, depression and forgiveness. 120 participants who were sexually abused presented high of shame and depression and low of forgiveness. The depression of the sexually abused group was positively related to shame, and negatively related to overall forgiveness, the forgiveness of self and situations. However, the forgiveness of others was not correlated. Based on the correlations above, we tested mediating effects of overall forgiveness, the forgiveness of self and situa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hame and depression. The results show that overall forgiveness and the forgiveness of self and situations had partial mediating effects, whereas the forgiveness of others, which correlation was insignificant, was not mediated. These findings suggests the necessity of a forgiveness approach by means of a therapeutic intervention for sexually abused survivors, especially suggesting that forgiveness of self and situation might be important. Finally, we discus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 future directions for this research.

*Keywords:* sexual abuse, shame, depression, forgiveness, forgiveness of self, others, situations.